서문

하찮은 정보들이 범람하는 세상에서는 명료성이 힘이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인류의 미래에 관한 논쟁에 참여할 수 있지만 명료한 전망을 유지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심지어 그런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지, 핵심 질문은 무엇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할 때가 많다. 우리 같은 수십억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일일이 조사해볼 여유가 거의 없다. 그보다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출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고 나이든 부모도 보살펴야 한다. 불행히도, 역사에는 에누리가 없다. 당신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느라 너무 바빠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류의 미래가 결정된다 해도, 당신과 아이들이 그 결과에서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건 아주 부당하다. 하지만 누가 역사는 공정하다고 했던가? 역사가로서, 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명료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는 있다. 그럼으로써 지구촌의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종의 미래에 관한 토론에 참여할 힘을 얻는다면 내 소임은 다한 것이다.

내 첫 책 《사피엔스》는 인류의 과거를 개관하면서 하찮은 유인원이 어떻게 지구 행성의 지배자가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 책 《호모 데우스》에서는 생명의 장기적인 미래를 탐사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결국에는 신이 될 수 있을지, 지능과 의식의 최종 운명은 무엇이 될지 생각해봤다.

이 책에서는 지금 여기의 문제에 주목해보려고 한다. 초점은 시사 현안과 인간 사회가 당면한 미래에 있다. 바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과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물론, 70억 사람에게는 70억 가지의 의제가 있다. 이미 말했듯이, 큰 그림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 해도 상대적으로 드문 사치다. 뭍바이 빈민촌에서 두 아이를 기르느라 분투하는 홀어머니의 관심사는 다음 끼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떠 있는 배 안의 난민들은 수평선 위로 물의 신호를 찾느라 혈안이다. 런던의 초만원 병원에서 죽어가는 남성은 한 번 더 숨을 쉬기 위해 남은 힘을 다 짜낸다. 이들 모두에게는 눈앞의 일들이 지구온난화라든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같은 문제보다 훨씬 다급하다.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책은 없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줄 교훈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다. 나도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의제는 전 지구 차원의 것이다. 전 세계 사회를 규정하고 지구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주요 힘들을 살펴본다. 기후변화는 생사의 다급함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로서는 관심 밖의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로 인해 몸바이 빈민촌마저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지중해에는 엄청난 새로운 난민 물결이 밀려들고, 보건 분야에는 세계적 위기가 닥칠 수 있다.

현실은 수많은 가닥의 실로 직조된다. 이 책은 우리가 지구 차원에서 당면한 곤경의 상이한 면들을 다루려고 한다. 모든 문제를 망라했다고는 할 수 없다.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와는 달리 이 책은 역사적 서사를 의도하고 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훈의 선집이라고 하겠다. 교훈이라고 해서 단순명료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독자 스스로 더 생각해보도록 자극하고, 우리 시대의 주요 대화 중 일부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 책은 실제로 그동안 대중과 나눈 대화 속에서 집필되었다. 많은 장이 독자와 언론인, 동료 들이 내게 했던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작성되었다. 일부 글의 초고는 이미 다른 형태로 출간되기도 했다. 그 덕분에 피드백을 받고 나의 주장을 다듬을 기회가 있었다. 어떤 절은 기술에 초점을 맞췄고, 어떤 절은 정치, 어떤 절은 종교, 어떤 절은 예술에 초점을 맞췄다. 어떤 장은 인간의 지혜를 예찬하고, 다른 장에서는 인간 어리석음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한다. 하지만 책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은 동일하다. 지금 세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사건들의 심층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은 무엇을 뜻하는가? 가짜 뉴스가 전염병처럼 번지는 데 대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는 왜 위기에 빠졌나? 신은 부활하고 있나? 새로운 세계대전이 다가오나? 서구와 중국, 이슬람 문명 중 어느 것이 세계를 지배할까? 유럽은 이민자에게 문을 열어두어야 하나? 민족주의는 불평등과 기후변화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테러리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지구 차원의 관점에서 썼지만 개인의 차원에도 소홀하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나는 우리 시대의 거대한 혁명들과 개인의 내적인 삶이 연결돼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테러리즘은 우리 마음 깊이 자리잡은 공포의 단추를 누르고, 수백만 개인의 사적인 상상을 납치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도 의회나 투표소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뉴런(신경세포)과 시냅스(접합부)에서도 함께 벌어진다. 진부한 말이지만 모든 사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하지만 과학자와 기업, 정부 등이 인간 두뇌를 해킹하는 법을 학습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 뻘한 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길하다. 따라서 이 책은 전체 사회는 물론 개개인의 행동까지 두루 관찰한다.